

## 「아가」

이보형

태평양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1945년 6월경 내게도 빨간 딱지, 즉 일본군 입대의 소집장이 날아올 예감이 나날이 커가고 있었다.

이런 즈음 이런 예감은 집안의 어른이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있으셨던 모양이다. 이분들도 우리들 장정이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자주 들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하시게 되었다. 만일 외아들인 내가 군대에 끌려가 혹 전사라도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손이 귀한 집안에 절손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이런 불길한 생각은 그 전 해 내가 징병검사를 받아 소집 대상이 되는 (보충병의) 판정을 받을 무렵부터 생기신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군대에 가기 전에 장가 들 생각이 없느냐고 넌지시 묻기도 하시고 한편으로 알래몰래 아는 사람들과 내 결혼문제를 의논하시기도 하고 적절한 규수감을 수소문하시기도 한 모양이었다.

이런 정황을 나도 짐작하여 별로 효도도 못한 처지에 군대에 끌려가기 전 이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가진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으로 떨쳐버렸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청상과부였다는 사실이다. 아니 할머니도 그랬다. 할머니의 경우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께서 부족증으로 요절하셨다고 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내 나이 여섯이 된 어느 해 여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 때

어머님의 나이는 설흔을 갓 넘었으니 그 비통함과 애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다행한 일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 그것을 관리하면서 나 보다 세 살 위인 누이와 내가 자라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살아오신 것이다.

만일 결혼하고 군대에 끌려가 운수불길하여 전사라도 한다면 나도 한 여인을 어머니와 같은 청상을 만드는 것이 된다. 다행히 결혼해서 자식이 안 생긴다면 개명천지에 개가라도 할 수 있겠지만, 자식이 생기면 그야말로 나는 절손을 시키지 않은데 대하여 조상에게 몇몇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 여인을 위해서는 못된 짓하고 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라치면 그 때마다 “생각해 보지요“ 하며 얼버무렸다. 그러는 동안 어른들도 나를 결혼 시킨다는 일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다. 설사 내가 결혼해서 혹 자식을 갖는다 해도 그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일이며 만일 딸이라면 만사 헛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이야기는 차츰 수그러져 갔다.

그러나 암만해도 소집장이 날아올 것 같은 예감이 커지면서 집안의 어른들은 색다른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 분들은 결혼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대에 가서 전사라도 한다면 총각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었다. 만일 부득이 귀신이 된다면 죽은 혼백이 짝을 찾아 허공을 헤메게 될터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귀신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신방을 꾸며 줄 수는 없어도 어떤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게 함으로써 귀신을 면하는 액땀을 할 수는 있지않겠느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분들은 총각 귀신이 되지 않는 절묘한 방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한 여인을 간택하여 나와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

나라는 총각에 바쳐진 희생양은 「아가」라는 이름의 나도 잘 아는

여인이었다.

「아가」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집안 식구들의 말을 들으면 「아가」의 부모는 원래 시골에 있는 우리 집 토지의 소작인이었는데 어느 해 여름 그 지방에 괴질이 돌아 갑자기 내외가 다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그때 「아가」는 대여섯 살이었는데 마침 우리 집에서는 누이가 태어나 장차 누이를 볼 아이로 여기고 집에 데려와 우리 집 식구가 되었다. 「아가」는 총명하여 나이 들면서 어머니의 시중도 들게 되었다. 언제부터 「아가」가 내 기억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누이가 「아가」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나도 「아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같이 놀곤 하였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은 나보고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으나 나는 끝내 「아가」를 언니라고만 불렀다.

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집에서는 「아가」도 학교에 보냈다. 나이가 많아 누이와 같은 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어 사립학원에 보내 4년 만에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게 하고 「아가」의 장래를 위하여 기술을 익히도록 할 생각으로 여자기예학교에 보내 양제와 한복을 배우게 했다. 졸업 후 「아가」는 어떤 옷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집에 드나드는 목수로 참한 젊은이가 있어 집에서는 그 사람과 짝을 지어주고 따로 살림을 차려 주었다. 「아가」는 결혼 후에도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가끔 집에 들렀는데 그 때 나를 만나면 아주 반갑게 대해주었으나 나는 건성 아는 척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후 3,4년이 지나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돈벌이하러 간다고 하며 훌쩍 일본으로 떠나갔는데 그 뒤 거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생이별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하는 말이 있었으나 실은 애를 갖는다는 핑계로 몰래 사귀던 여자와 사랑

의 도피를 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어쨌든 내가 「아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부르시더니 집안의 어른들이 총각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니 아무 말 말고 따르라고 하시면서 당시 신혼여행의 명소로 되어 있던 온양온천의 어떤 객사에 가서 「아가」를 만나고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어안이 병병했다.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아가」를 설득했는지, 또 「아가」는 현재 독수공방의 처지에 있다하더라도 엄연히 어엿한 한 지아비의 아낙인데 나와서 만남이 불운이라는 것 알면서도 승낙을 했는지 착잡한 심정을 지닌채 잠시 머무적거렸다. 결국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끝내 거역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약간의 망설임 끝에 순응한 것에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난생 처음 성숙한 여성을 만난다는데 대한 설레임 이라할까 또는 호기심이라 할까 그런 야릇한 심정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 (2)

예약된 객사의 방에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아가」는 이미 거기 와 있었다. 서로 멧쩍은 얼굴이었으나 그래도 그녀가 연상이어선지 먼 길 오는데 수고가 많았다고 하며 먼저 말을 건넸다. 나도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도대체 그녀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가」라고 할지, 아줌마라고 할지 어렸을 때 같이 「언니」라고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녀는 나보고 자라면서 가끔 보기는 했지만 이제 보니 제법 어른의 티가 난다고 계면쩍게 말하여 잠시 흘렸던 침묵의

시간을 켜다.

20을 갓 넘은 나를 보고 제법 어른스러워졌다는 말에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들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어릴 때의 내 모습이 각인되어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썩 편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보니 얇은 화장을 한 얼굴은 평범한 아낙네의 얼굴이지 만 조신하게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청초한 기품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은 오래전에 남편과 생이별한 뒤 단정하게 몸을 간수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노처녀라고 볼수도 있는 이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하나의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도련님”

그녀는 주저하는 듯이 말을 이었다. 저녁을 들기에는 아직 이르니 그 전에 탕에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여기는 대중탕은 없고 가족탕만 있으니 먼저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가족탕이라는 말에 나는 그러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장난기 어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으나 그런 말을 할 용기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럴까요. 먼저 하셔도 되는데요”

하고 대답하였다.

“어떻게 내가 먼저 할 수 있겠어요. 수건과 비누는 욕탕에 다 마련되어 있으니 먼저 다녀 오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그러지요”

하고 나는 뛰어나오듯이 방을 나왔다. 방을 나오니 그동안 무엇인지 억눌려 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탕에서 나와 방에 돌아오니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잠옷을 가리키면서 갈아입고 편히 쉬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잠옷으로 갈아입다가 그녀가 돌아오면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새로 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잠시 방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객사를 나와 약 한 시간가량 온천장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왔다. 그 동안에 그녀도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 어디 바람을 쐬고 왔느냐고 묻고 저녁을 가져오게 하겠다고 하였다.

전시 중이라지만 저녁상은 그런대로 융숭한 편이었다. 나와 「아가」는 그저 말없이 저녁을 들었다.

저녁상을 물리러 온 객사의 하녀는 잠자리를 마련할 터이니 그 동안 잠시 객사의 정원이나 거리를 산보하라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그래서 둘이는 말없이 방을 나와 제법 잘 가꾸어진 객사의 정원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방은 객실과 침실의 두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침실에는 두 채의 이부자리가 나란히 펴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 개의 흰 베게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펴 놓은 자리를 보니 기분이 묘했다. 두 자리는 나란히 붙어 있지만 그 자리에 들 사람들의 마음도 붙어 있는 것인지, 둘이는 서로 서서 멍하니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마냥 서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 나는 「아가」의 손을 잡고 객실에 앉았다.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잠시 손을 뒤로 빼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어른들의 묘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기는 했으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금 뒤 고개를 숙인 채

“나도 같아요. 그러나 아주머님의 절박한 심정을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예요. 도련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군대에 끌려

가기 전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뿐이예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인가 복받치는 것이 있는지 흐느끼면서 마지막 말은 들릴까 말까 하였다. 그리고 손도 약간 떠는 것 같았다. 그러자 나는 순간 손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를 감싸는 듯이 가볍게 껴안았다. 그녀는 저항 없이 껴안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 때문인지 미안하다고 한 마디 했다.

잠시 뒤 우리는 떨어지면서 자연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 동안 수 없이 서로 얼굴을 보았겠지만 정면으로 서로의 심정을 다짐하듯이 보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했다. 객실에는 라디오도 없고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있을 수 없었다. 바둑, 장기, 그리고 화톳 한 벌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놀 기분도 아니었다. 그래서 자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살았을 때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들의 긴장은 많이 풀리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져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누가 먼저 잠자리에 들자고 했는지 내가 먼저 그랬는지 그녀가 먼저 그랬는지 언제 서로 잠옷으로 갈아입었는지 붙은 누가 쫓는지. 이런 일들이 도통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녀는 그녀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들어가 있었다.

자리에 들어 누웠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긴장의 연속이어서 보통이면 심신의 피로에 저절로 잠이 들겠지만 자리에 들면서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리는 더 맑아지는 것 같았다. 옆에 누워있는 「아가」의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는 않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아

왔다. 이것이 다 집안 어른들의 절묘한 계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니 나나 그녀나 다 같이 그 계책의 희생자요 피해자에 틀림이 없었다.

나는 옆에 들어 누워있는 「아가」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몇 번이고 다짐하였다. 그것은 불륜이요 따라서 죄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아가」는 다 각오하고 온양까지 온 것이므로 내가 말하자면 수작을 건다 하더라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일 마음과 몸의 준비는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녀가 먼저 총각 귀신을 면하게 하는 일에 협조하러 온 이상 그녀가 먼저 나에게 다가 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생같이 대했던 나를 성인으로 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도 착잡한 심정에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숨을 죽인 듯이 조용히 누워 있으리라 상상하니 그녀에 대해 측은하고 미안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기는 하나 몸은 마음과는 달랐다. 청춘의 혈기는 자꾸 나를 그녀 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녀에 대한 욕정을 억제 시키며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육과 영의 이완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아가」를 다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 하는 동안 어느 듯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에서 깨어나니 날은 흰히 밝아있었다. 깜짝 놀라 옆자리를 보니 「아가」는 거기 없었다. 혹 화장실에 갔을 것이라니 생각하고 잠시 천정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화장실로 갔더니 거기에도 없었다. 의아해 하면서 거실에 돌아와 보니 책상위에 무엇인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을 보니

「미안해요. 꼭 살아 돌아오세요」

라는 두 마디가 적혀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날이 밝아오자 일어나 이 쪽지를 남기고 그녀 자신과 나 자신을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게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객사를 떠났을지도 모른다.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동이 트자 그 쪽지를 남기고 떠났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집안 어른들의 절묘한 계책은 결국 불발로 끝나버렸다.

(3)

집에 돌아오니 바로 그 날 아침 소집장이 전해졌다고 했다. 일주일 뒤 나는 용산의 일본군 부대에 입대했고 며칠 뒤 만주로 끌려가 연변에 있는 어느 산 속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어 진지 구축 실전 훈련을 받게 되었다. 한 두 달 쯤 지나자 소련군이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깨고 북만으로 쳐들어왔다. 우리 부대는 현재의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련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통보가 상부로부터 전해졌다. 결국 전쟁터에 있었기는 했으나, 총소리 한방 듣지 못하고 총 한번 쏘지 못하고 종전을 맞이한 꼴이 되었다. 이어서 우리 부대는 연길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강행군을 하여 이틀 뒤 연길에 도착하여 일본군의 병사에 도착했다. 여기서 부대는 무장해제를 당하고 소련군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정말 「총각귀신」이 될 뻔했다.

수용소는 9월이 되자 일본인은 시베리아로 보내고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온 조선인과 중국인은 각자 고향으로 보내준다 하면서 차일피일하다가 이듬해 2월 중순경 우리를 풀어주었다. 그 동안 못 먹고 추위에 떨고 이에 더하여 발진티푸스까지 돌아 많은 사람이 아사하고 동사하고 병사했다. 나도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었으나 용케 죽을 고비를 넘겨 천신만고 끝에 돌아 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심신의 피로가 풀려서인지 거의 달포를 알았다. 그 동안 나는 「아가」에 대해 궁금했지만 집안의 공기가 그녀에 관해 말한다

는 것이 금지된 것 같아 묻지를 못했다.

건강이 회복되자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무렵에는 어떤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운 좋게 의용군을 모면했고 서울이 수복되자 다소라도 애국한다는 정신으로 통역장교를 지원했다. 1.4 후퇴 뒤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4월에 서울이 수복되어 전선이 38선 이북으로 북상하자 중부 전선에 있는 양구의 사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춘천이므로 주말에 휴가가 나오면 서울에 가기도 하고 춘천에 가기도 했다. 춘천에 가야 이렇다 할 오락 시설도 없었으나 다행히 새 책과 헌 책을 파는 서점이 있어 그런데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4)

어느 날 춘천에 나와 어떤 거리에서 모퉁이를 돌 때 어떤 부인과 맞부딪칠 뻔했다. 몸을 피하면서 미안하다고 한 마디 하며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인은 바로 「아가」였던 것이다. 그 쪽에서도 나를 알아보고 픽 놀란 표정이었다. 둘이는 잠시 말 없이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를 그 근방에 있는 다방으로 안내했다.

좌정하고 차를 주문하고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찻잔이 놓아지고 내가 그녀에게 차를 권하자 그 때 비로서 그녀는

“할머님, 어머님 다 안녕 하신지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 나는

“다 안녕 하세요”하고 말한 뒤

“그런데 어떻게 언니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사시나요? 혹 다니러 오신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여기 사는 어떤 분과 옷가게를 차리고 또 젊은 아가씨들에게 양재

니 한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여기서 동생을 만날지는 전혀 상상도 못 했네요.”

“나는 양구 부근에 있는 부대에 와 있고 주말에 외출하게 되면 서울에 올라가기도 하고 춘천에 놀러 오기도 해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누이를 여기서 만났다고 말씀을 올리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동생이 일본군에 끌려간 뒤 서너 번 두 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가끔 찾아뵈는 일이 있지요. 그때마다 두 분은 내 손목을 잡으며 『「아가」야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시며 오히려 내 마음을 달래 주셨어요.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뒤 댁에 들린 일이 있었고 부산에 피난 가셨을 때에도 수소문해서 계신 곳을 알아내 찾아 뵈일도 있지요. 그 때 통역장교를 지원해 군에 입대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동생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군복을 입은 늙은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짝 찬 기분이에요.” 하고 대견스럽다는 말을 했다. 그녀는 시종 얼굴에 웃음을 띠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몸 전체에서 어딘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아참, 일본에 간 그 분 소식은 모르세요?”

이 물음에 그녀는 좀 당황하는 것 같고 웃음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해방 후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단념하고 있어요. 그래도 생사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산 있을 때 일본에 밀항할 마음도 가져 본 일이 있었으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대로 그저 지내고 있네요. 그 사람과는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정도 깊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언젠가는 일본을 한번은 다녀와야 할 것도 같아요.”

공연히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이 후회스러워 현재 사는 이야기로 서로 화제를 돌렸다. 이력저력 한 시간이나 지냈을까 나도 귀대를 생각하여 춘천을 떠나야 했으므로 시간을 묻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동생은 언제 또 춘천에 나오지?” 하고 이번에는 누이가 동생에게 말하듯이 물었다. 나는 그녀의 달라진 말투에서 처음에 둘 사이에 있었던 서먹서먹한 마음은 사라지고 격의가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진 느낌이 들었다. 2주일 뒤에 휴가가 나오는데 지난번 서울에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춘천에 있어도 괜찮을것 같다고 말하자

“그럼 그 날 오후 5시경 여기서 만날 수 있겠네. 오늘 모처럼 만나기는 했으나 너무도 갑작스러워 아무 대접도 못 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날은 내가 저녁을 대접할 터이니 그리 알고 그 시간에 여기에 꼭 나와 있어야 해” 하고 다짐하듯이 말했다.

「아, 나야 좋지만 누이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니

「무슨 소리. 내가 무얼 한다고. 서울의 할머니이나 어머니가 내가 동생에게 아무 대접도 안하고 돌려보냈다면 그 분들도 섭섭하게 여기실꺼야. 꼭 나와야해“ 하고 또 한번 다짐하듯이 말했다.

다방을 나오자 「아가」는 부대로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하고 돌아갔다.

(5)

2주일 뒤 휴가가 나오자 나는 약속대로 다방을 찾아갔다. 내가 좌정하여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다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전보다 약간 화려한 옷을 입었고 항상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와

나보다 늦게 온 것을 사과했다. 그녀도 차를 주문하고 마시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일어나자고 하고 다방을 나왔다. 여기까지의 그녀의 행동거지는 전에 볼 수 없듯이 경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그녀를 따라나섰다.

지난 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거리 모퉁이를 돌아 좀 걸으니

“여기가 내가 일하는 가게야” 하고 어떤 가게 앞에서 멈추었다. 닫혀있는 셔터를 열고 가게 안에 들어가니 한복과 양장 옷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안에서 셔터를 내리더니 가게 뒤 쪽으로 나를 안내했다. 가게의 뒷문을 나오니 제법 넓은 마당이 나왔다. 그리고 그 마당 건너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자기가 기거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저녁을 들고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푹 쉬라고 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저녁을 차리는 동안 피곤하면 잠시 눈을 부치라고 하였다.

옷장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경대앞에 화장품도 있고 자그마한 책상도 있는 그 방은 티끌하나 없는 깨끗한 방이었다. 가구나 방의 분위기 전체가 그녀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책상위에는 몇 권의 잡지가 놓여있어 이것 저건 훑어보고 있는데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

“좀 누추하지”

한 마디 하고 저녁이 준비되었으니 건너 방으로 가자고 하고 그 방으로 안내했다. 앉으라고 자리를 정해 준 뒤 상보를 거두면서

“별로 차린 것도 없고 내 솜씨도 별로라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 라고 하였다. 사실 산해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 그릇이 짝 들어찬 상차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게 보여

“아이, 별 소리를 하네요. 고맙게 먹지요.”하고 나는 대답할 뿐이었다.

“아, 참, 술 좋아해?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위스키도 있고 깡통맥

주가 있는데”

“난 술 못해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화끈해지고 졸음이 와요”

“그래 그러면 잘 됐군. 맥주로 건배하고 식사하기로 하지” 하고 맥주를 권했다.

그 날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쳤다. 「아가」는 어머니가 어린애를 다루듯이 나를 달래며 10년이나 닫혀있었던 아니 닫았던 그 금남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나는 눈을 떴다. 옆 자리를 보니 「아가」는 없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양에서 있던 일이 생각나 벌떡 일어나 어리둥절 주위를 살폈다. 그 때 내가 잠을 깬 것을 눈치 챘는지 그녀가 방 미닫이를 열고 들어와 내 옆에 앉으면서 간 밤에 내가 곤히 잘 자더라고 말을 건넸다. 이 순간 나는 그녀에 대해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아가」에 대한 연정이며 그 연정은 그녀에 대한 욕정으로 분출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를 힘차게 끌어당겨 숨 막힐 정도로 그녀를 안았다. 「아가」는 나를 밀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순히 눈을 감으며 그녀의 얼굴로 내 얼굴을 덮으며 온몸을 나에게 맡겼다.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거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침 겸 점심을 들고 그 집과 가게에서 나왔다. 그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다. 누구든지 침묵을 깨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겁이 났던 것이다.

집을 나온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헤어질 때 나는 그녀를 누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가」라고 부르며 다음에 휴가 나오면 그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를 했다.

(6)

그러나 2주 뒤 그 다방에 갔으나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일하던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는 열려있고 손님들도 몇 사람이 있어 소도시의 가게로는 북적거리는 편이었다. 내가 가게에 들어가 두리번거리자 그녀보다는 약간 연상으로 보이는 부인이 나에게 다가와 내 명찰을 보고 「아가」를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안에 들어갔다 오더니 봉투하나를 건네주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가」는 이제 여기 없다고 하였다. 나는 왜냐고는 묻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만 말하고 가게를 나와 다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봉투에는 「아가」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동생에게,

동생과 헤어진 다음 날 나는 춘천을 떠났어요. 내가 춘천을 떠나는 것은 동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동생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정한 일이었어요...

동생도 알다시피 나와 이별한 그 사람의 소식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떨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이런 감정은 그 사람을 연모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던 죽었던 그 사람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내 마음은 잠시나마 그 사람과 살을 섞었던 내 도리 같이 생각 되어서예요. 그러던 차에 남쪽 어떤 항구에 사는 친구로부터 안전하게 일본에 밀항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일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공교롭게도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자연 온양에서의 일이 회상되었어요. 나를 키워주신 주인댁의

도령을 위해 내 몸을 바쳐도 좋다는 각오는 단단히 했지만 막상 어렸을 때의 동생이 아니라 성인이 된 동생을 새삼스럽게 보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근히 동생이 차라리 내 쪽으로 다가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내게 등을 돌리고 꿈쩍도 안 하는 동생에게서 내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가늠한 심정을 느껴 내 마음은 더욱 괴로웠어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하다가 동이 트자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도망치다시피 객사를 뛰쳐나온 거예요.

서울에 와서 곧 동생이 입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최악의 불행한 일이 만의 하나 생긴다면 나야말로 동생의 혼백을 떠돌아다니게 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겨 여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할머니나 어머니에 못지않게 동생의 안전을 빌었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댁으로 달려가고 싶은 정도로 기뻐던 거예요.

그러나 동생의 총각이란 딱지를 떼는 일은 결국 내 몫이 되고 말았군요. 필경 동생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춘천을 떠나려는 바로 그 찰나에 동생을 만나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동생과의 재회를 약속한 것이예요. 그렇지만 나는 동생과 영원히 잇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처음부터 마음먹었거나 예상하거나 한 것은 아니예요. 어떻게 나 같은 헌 계집이 아직도 순결한 동생을 넘볼 수 있었겠어요. 물론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온양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이 회상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저 내 마음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군대 생활에 지쳐있을 동생에게 옛적의 누이로 돌아가 한 끼라도 따스한 음식을 대접하고 하루 밤 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의 어른들이 꼭 좋아하신다고 장담은 못해도 나로서는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온양에서의 악몽과 더불어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생을 다시 볼 때 나는 어딘지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동생을 내 품 안에 안았어요. 동생도 나를 안고 내가 여성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아침 역에 동생이 나를 원했을 때 내 가슴은 설레이며 희열에 가득 차 나는 동생이 원하는 대로 내 온 몸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나 동생. 사랑하는 동생. 우리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생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동생과의 그 한 밤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밤으로 영원히 추억하면서 살거예요.

제대하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규수와 연을 맺어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 마지않아요.

그럼 안녕.

## 아가로부터

다방의 구석진 자리에서 편지를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흘러 나오는 눈물을 어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디 인적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아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다. 「아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 「아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에 대한 그리움만 깊어갈 뿐이었다.

「아가」.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본에서 사는지 여기서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 「아가」를 생각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녀를.

